

# 여야정, 다음주초 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법 논의

### 최상목 대행·우원식 의장·여야 대표 '4자 회담'... 경제 위기 초당적 대응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 사항

정부와 여야가 다음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는 등 미국발 경제 위기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다.

여·야·정은 4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의 2월 국회 처리와 국회 연금개혁·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요 의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여러 쟁점 사항을 두고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혜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 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5개월간 지속됐던 '수출 플러스' 흐름의 중단과 4년 만의 비자발적 퇴직자 수 증가를 거론한 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경제·외교·안보 이슈 공략 '외연 확장' 속도

### 방산 산업 지원 약속·'딥시크 대응' 간담회...내일 성장전략 세미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경제와 외교·안보 이슈 공략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의 깃발을 들어 올리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도 일제히 '모드 전환'에 나서는 모양새다.

탄핵정국에서 여론이 보수와 진보로 양분돼 차기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넘어 중도·보수층 공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에 대해서는 '내란 세력'으로 선을 그으면서도, 중도·보수층이 중시하는 경제·외교·안보 이슈에 집중하며 실용적인 수권 세력 이미지 부

각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차기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했던 세미나를 성장전략을 주제로 6일 재개한다.

당 관계자는 "세미나에서는 미래 첨단산업 발전 전략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거시적인 성장 전략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과학기술혁신특위와 AI진흥TF,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위성락(의통위) 의원과 박선원·부승찬(국방위)은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를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첫 행

사로 조직 개혁 방안을 다룬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내란 종식을 위한 행보를 계속해나가면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정책 행보를 수권 정당 모습을 부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안쪽은 내란, 외적으로는 새로운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국내외적 상황 속에 실용주의로 방향을 잘 잡았다"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기 어렵고, 이념 지향적이 아닌 실용주의적 민생 살리기로 나가는 것은 지상명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52시간제 예외규정' 수용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연일 유연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대표들은 이날도 방산 산업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등 '보수 어젠다' 공략에 힘을 쏟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崔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시 탄핵 사유"

###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중시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는데, 여기엔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직무 유기를 하면 넘어갈 수 없다"며 "일단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의) 현재 선고가 밀렸으니 지켜는 보겠지만, 좌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뒤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최 권한대행이 현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고발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공당인가. 위헌정당 심판에 제소될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현재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 흔들기"라고 비판하며 "극우 세력과 결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 무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

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희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의 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검찰은 문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경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QR code and text: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